

우리는 모두 플루토피아의 시민이다

김효민*

[서평] 케이트 브라운(2021),

『플루토피아: 핵 재난의 지구사』, 푸른역사, 783쪽

1. 핵무기 조립과 중산층 번영의 역사:

“안전한” 원자력 마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케이트 브라운의 『플루토피아: 핵 재난의 지구사』는 미국 워싱턴주 동부의 리치랜드와 러시아 우랄 남부의 오요르스크를 “단합된 두 공동체”로 그려낸 책이다(17). 리치랜드 근처의 헨퍼드 공장과 오요르스크 옆의 마야크 공장은 핵무기 조립을 위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1940년대부터 40년간 가동되었고 각각 최소 2억 퀴리에 달하는 방사능을 주변 환경으로 방출하였다. 이는 체르노빌 방사능의 두 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책은 매우 간명한 질문을 던진다. 왜 모두가 체르노빌에 대해 들어보았는데, 헨퍼드와 마야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일까? 리치랜드와 오요르스크의 지도자들은 그 도시에 사는 박사들의 수를 자랑스럽게 내세우곤 하였는데, 왜 이 고학력의 주민들은 방사능에 의한 환경오염을 수십 년 동안 묵인하였던 것인가?

이 책의 교훈은 간명한 질문에 대한 간명한 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답을 별반 충격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미 꽤나 잘 알려져있어서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습관을 뒤집는 저자의 시각과 접근으로부터 찾을 수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인문학부 부교수

있다. 답은 놀랍지 않다. 세계 최초의 플루토늄 공급 기지 운영을 담당했던 권력자들은 번듯한 주택, 쇼핑몰, 학교, 여가시설이 갖추어진 핵가족 중심, 소비자 중심의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에 핵 반응로를 건설하는 일 만큼의 공을 들었다. 1940년대에 리치랜드에는 “연방정부의 후한 보조금”으로 “백인 중산층 가족과 안전을 동일시하는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다(79). 동일한 시기 오조르스크에서는 “과학자와 감독관들을 위한 특별 카페”가 만들어져 “배급표 없이 사탕, 과일, 와인, 고기를 1인이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제공”했다. 오조르스크의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소시지, 캐비아, 초콜릿과 같은 희귀하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부족함 없이 공급받았다(216).

이 타국의 지난 이야기들은 우리를 놀라게하지 않는다. 우리는 원자력 관련 시설과 보상금에 관한 기사를 수없이 많이 읽고 있으며, 어느 지역이 시설 유치에 찬성했다는 기사에 어김없이 보상금과 관련된 댓글이 달린다는 것도 알고 있다. 후쿠시마 재난 이후 “핵 마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본 전력 회사들이 중산층 번영이라는 비전을 원자력에 끼워 팔면서, 정작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에 소극적이라는 비판 또한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것이다.

앞서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다 나온 것이 아닌가? 미국 리치랜드와 러시아 오조르스크의 주민들은 환경오염을 문제시하기보다 묵인하기를 선택했고 이것은 중산층 번영이라는 비전 때문이었다. 여기서 더 이상 “이 플루토늄 도시 주민들이 자신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되물을 이유가 있을까?(20) 그러나 저자는 “나는 이러한 선택들이 궁극했다”고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힌다(20). 그리고 바로 그 시각이 중요하다. ‘주민들이 고위험의 대가로 중산층 번영을 택했으니까’는, “왜 미국의 심장부에서 체르노빌을 뛰어넘는 재난이 일어날 정도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저명한 원칙이 실패했던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아닌 것이다(20). 케이트 브라운은 700페이지가 넘는 책 속에서, “중산층 번영”의 위력이 처음에는 모래 위의 성처럼 위태로운 것으로서, 그러나 시간이 지날

수록 견고한 것으로서, 어쩌면 일련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보다도 매력적인 것으로서 만들어지고 변환되는 과정을 그려내었다. 이것은 중산층 번영과 원자력이 서로를 구성해갔던 역사이다.

1940년대 오쥘스스크의 한 장면을 보자. “이 먼지투성이 거주지는 실제로 재즈관현악단과 합창단, 공연장과 영화관 (...)을 자랑했다. (...) 그러나 사람들은 훌륭한 상점으로 가기 위해 고무장화를 신고 진흙 속을 걸어야 했고, 영화관의 좌석 일부는 뒤쪽으로 기울어져 (...) 곰팡이가 퍼지고, 수도관이 텅텅거리고, 전기 불꽃이 튀었다”(266). 중산층 유토피아 건설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안한 불협화음이 단지 자원 부족의 소산인 것은 아니었다. 높은 직급의 직원들과 건설 용역 하청 업체의 직원들은 작은 지역 내에서도 공간적, 계급적, 인종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이것은 단일 계급의 풍요라는 장밋빛 청사진의 허구성을 폭로할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비전이 현실을 이겼다. 고급 주택과 좋은 교육, 소비적 문화를 함께 배치하는 기획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고, 그것을 모방하여 들어선 유사한 교외 지역들은 우리의 눈에 리치랜드가 평범해보이게 한다. 리치랜드의 1960년대를 보자. “리치랜드 10대들은 머리를 기르거나 나팔바지를 입지 않았다. 누구도 반전 시위를 벌이지 않았다”(533). 그리고 1970년대 환경 운동과 반핵 운동이 미국을 휩쓸었을 때 “리치랜드 주민들은 자신들의 원자로를 구하기 위해 모금을 하고 편지를 쓰고 회의를 조직했다. 그들은 그럴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해야한다고 느꼈다”(534). 브레즈네프 시기(1964~1982) 오쥘스스크의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공장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이 6시간, 주 5일로 단축되면서 낚시, 정원가꾸기, 자동차 만지작거리기와 같은 취미를 가질 수 있는 여가 시간이 생겨났다. 원자력 시설의 노동자들은 직원 전용으로 지정된 고급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었다. 오쥘스스크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자신과 달리, 구할 수 있는 직업이라면 무엇이든 붙잡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갖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계층 상승 욕구로 충만한 중산층의 정체성은, 경비원이 지키는 출입

문으로 막힌 오조르스크가 교도소 같다는 불만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러한 조치가 왜 중요한지 이해”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와 조화를 이루며 나타났다. “출입문은 점점 주민들을 안에 가둔다기보다는 하층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 더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503).

2. 위험을 목인하는 사람들의 위험 이해

그렇다면 방사능의 위험은, 중산층 번영의 비전이 견고한 지지를 획득해가는 과정에서 충격을 일으키지 않았던 것인가? 이 주민들은 방사능의 위험을 어떻게 이해했다는 것인가? 리치랜드와 오조르스크의 모습은 이 문제에서도 서로 닮은꼴을 보인다. 헨퍼드의 원자로들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1960년대부터 여러 번 폐쇄와 파산의 위기에 놓였다. 이어진 1970년대에는 베트남 전쟁과 워터게이트 사건의 영향으로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 이 움직임은 리치랜드 사람들의 반발심을 일으켰다. 그들은 핵무기 조립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한 자신들, 바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불평 없이 스스로를 희생”한 자신들의 앞에, “연방정부, 자유주의자, 생태 운동가들”이 나서서는 어둠 속에서 번쩍거리는 방사능에 대한 불쾌한 농담을 지껄여가며, 리치랜드 사람들이 제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운데 원자력 거래가 끝나버리도록 과장 분위기를 주도한다고 느꼈다(538).

리치랜드의 풍요가 한 순간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지만 원자력 거래는 그리 쉽게 끊기지 않았다. 헨퍼드의 원자로들은 1973년 석유 파동, 더욱 결정적으로는 197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 되살아났다. 1980년대의 보수화 분위기 속에서 리치랜드 사람들은 그들의 공장을 알고, 그들의 소위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던 로널드 레이건을 열렬히 지지했고, 레이건은 스타워즈 계획을 통해 지지에 보답해주었다. 레이건이 플루토늄

주문을 통해 리치랜드에 돌려준 것은 “핵 방위 경제의 밝은 미래”뿐만이 아니었다. 리치랜드가 “1970년대에 빼앗긴 지위(status)와 자부심(pride)”이 돌아온 것이었다(539).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 리치랜드 고등학교 동문들의 온라인 모임 운영자들이, 건강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꺼린 것은 놀랍지 않다. 우리는 “‘좋았던 시절’을 나눌 수 있는” 포럼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인 코멘트는 가급적 자제하고자 말하는 사람들의 심경을, 그들의 “향수 속에 깃들어 있는 슬픔”의 크기를 이해할 수 있다(539).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의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권력의 중심에서 빗겨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직면하는 위험이 실상 논란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측정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예컨대 영국 정부는 1980년 살충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Pesticide)를 운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농장 노동자들과 과학 전문가들의 위험 이해가 충돌하였다. 제초제를 정확한 작업 조건에 따라서 사용하면 건강 위험에 유의미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과학 전문가의 진술에 대항하여, 농장 노동자들은 실제 피해사례를 수집했다. 이들은 정확한 작업 조건이란 지켜지지 않고, 적절한 분사 장치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도 농장일은 수행된다는 자신들의 경험적 지식을 근거로 활용하여, 사전적인 위험 규제의 필요성을 주창하였다.¹

위험(risk)이란, 피해(harm)의 가능성(possibility)이며, 필연적으로 불확실성(uncertainty)을 포함하는 개념이다.² 따라서 위험이란 인식과 실제의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다. 우리는 제초제의 인체 영향과 관련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반론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과학 전문가들의 실험

1 Alan Irwin (1995), *Citizen Science: A Study of People, Expertis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18-20.

2 Ulrich Beck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Publication, p. 4.

방법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반면 농장 노동자들이 수집한 실제 피해사례는 제초제 외에도 작업 수행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 변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낸 일화적 증거(anecdotal evidence)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위해도 안전도 모두 가능성의 영역에 놓인 상황에서 새로운 사실의 발견은 기존의 인식에 깊이 의존하게 된다.

과학기술학의 연구들이 주는 통찰은, 노동 현장에 뿌리를 둔 지식이 근원적으로 참에 가깝다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농장 노동자들의 삶과 얽혀 생산되는 대항 지식과 그들이 주류과학 앞에서 유지하는 회의적 태도가 상호를 지지함을 볼 수 있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영국 농장 노동자들로 하여금, 제초제와 건강 위험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과학적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게 만든 것은, 대조군을 활용하는 실험 방법에 대한 그들의 지식 결핍이 아니었다. 위험의 실체를 이해시키겠다는 의욕을 가진 정부 관계자가 펼치는 과학적 실험 설계에 관한 매뉴얼은, 이들에게 판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 중요순위와 맞지 않아 생뚱맞고 무의미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리치랜드의 사람들이 고등학교 온라인 동문모임에서 환경문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선택에 대해서도 이해해볼 수 있다. 이들은 1970년대 주류 정치의 한 축이 된 자유주의자와 생태 운동가들과는 다른 질서 속에서 다른 비전을 갖고 일상을 영위해왔다. 이들에게 생태 운동가들이 설명하는 방사능 위험의 확률이란, 영국 농장 노동자들 앞에 놓인 정확한 작업조건에 따라 사용된 제초제가 인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만큼이나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위험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한 위험 요인이 실험 동물의 기관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방식같은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위험 요인이 배태된 복잡다단한 일상의 흐름을 따라 형성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과학기술학의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위험의 영역에서 인식과 존재의 경계란 희

미한 것이다. 리치랜드를 이미 떠난 사람들이 고향의 방사능 위험 이야기를 1990년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꺼리면서 ‘좋았던 시절’을 증거하는 실재를 찾도록 만드는 것은, 단순히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아니고 방사능 위험에 대한 정보의 결핍도 아니다. 인간의 위험 이해와 대처 전략이란 그렇게 간단한 변수 한 두 가지로 결정되지 않는다.

3. 위험을 폭로하는 사람들의 위험 이해

그렇다면 플루토늄이 세운 도시를 유토피아로서 기억하기를 거부하는 일부 주민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위험과 관련된 어떤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까? 31장에서 저자는 1957년 키시팀 사고 상황에 대한 목격담을 말해 준 갈리나 페트루바를 만났던 상황을 세세하게 묘사했다. 80대 초반의 나이에 치아가 거의 다 빠진 여성이, 당국의 감시를 받고서 살해될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자는 그녀야말로 믿을 수 없는 말을 늘어놓는 인터뷰이의 전형적인 사례(classic unreliable narrator)일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렇다. 많은 경우 연구자는 인터뷰이의 말이 사실인지를 알 수 없다. 연구자는 최대한 성실한 조사를 통해 공식적 기록과 인터뷰이의 말이 같은 궤적을 그리는지 살펴보지만, 한 편 연구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가려내는 탐정이나 심문자의 목표와는 다른 것이다.

페트루바의 회고에 따르면, 키시팀 사고는 한 번의 폭발로 요약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 폭발 이전에도 플루토늄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에서는 명올이며 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페트루바는 늘 일에 시달렸다. 방사선을 측정하는 필름 배지를 항상 패용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이었지만, 테크니션들은 “더러운” 작업을 할 때면 배지를 떼야 한다는 현장의 지식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 허용치보다 높은 선량의 방사선이 측정되면 같은 교대조의 모든 테크니션들이 월간 안전 보너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갑상선 질환을 앓았던 동료는 실험용 약으로 치료를 받았다. 공장의 안전 기록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고 방사성 물질의 유출은 일상적이었다. 그리고 1957년 9월 29일에는 지하 저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고방사성 폐기물이 과열되면서 폭발이 일어났다.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다. 아무도 무엇을 해야할 지 몰랐다. 폭발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마도 기초 공사에 동원되어 일하는 죄수들이나 병사들이 암석을 폭파하고 있는가 생각하며 일상을 계속할 때, 버섯 모양의 방사능 연기가 피어올랐고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거무스름한 비가 내렸다. 페트루바는 “회색 그늘음이 도시의 식수원인 이르타시 호수로 떨어지는” 가운데 젊은 병사들이 “창백하고 구토를 했으며 피를 흘리며 떨고 있었고, 이미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443). 반면 사고 이후 플루토늄 공장의 새로운 책임자로 오조르스크에 온 미셴코프는 “이 정도 선량이면 이곳에서 우리는 150년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450).

저자는, 인터뷰이의 말이 사실인지를 전지적 시점에서 파악할 수 없는 연구자가 무엇에 주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실험실 테크니션으로 일했던 이 80대의 여성은, 당국이 대화 내용을 알게될까봐 두려워하면서도 미국에서 온 연구자를 만나겠다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와서는, 자신이 사회주의권의 거의 모든 나라를 관광할 만큼 여유있게 살았으며, 비록 도시 중산층 출신이 아니었지만, 마을 출신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고 싶어 했다. 이것은 페트루바에게 중요한 이야기였다. 오조르스크에서 전기와 냉온수 시설을 갖춘 아파트를 소유하고, 우아한 상가와 영화관에 드나들었던 페트루바가 “견딜 수 없었”다고 표현한 것은 그가 도시에 오기 전, 간호사로 파견되어 근무했던 한 마을에서의 오두막 생활이었다.

1957년 키시뎀 사고를 목격하지 않은 우리는, 페트루바와 다른 오조르스크 주민들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 사실이 두 극단의 어느 중간 지점에 있는지를 영원히 알 수 없다. 질적 연구자의 목표는 명백한 사실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부분적 진실들의 패치워크로

서만 드러나는 현실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한 올 만큼의 단서를 통해 넓히는 것이 질적 연구자의 역할이다. 페트루바는 오조르스크를, 그와 남편이 소비에트 중산층을 향해 가고 있다고 느끼며 살았던 공간으로서 표현했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하고 핵무기 산업이 사양화되면서 페트루바는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은퇴를 빼앗겼다. 1957년 재난에 대한 회고를 하던 도중 페트루바는 자신이 현재 다른 4명과 함께 살고 있는 방 두 개짜리 아파트와 부족한 연금에 대한 이야기로 끊임없이 돌아갔다. 바로 이 박탈에 대한 분노가, 키시팀 사고의 피해에 관해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오조르스크 주민들과 페트루바의 차이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우리는 페트루바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가 1957년도 재난의 심각성을 미국인 연구자에게 들려주고 싶어했던 맥락 속에 정착지 출신 노동계급의 좌절된 성공 이야기가 자리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리치랜드에서와 마찬가지로, 오조르스크에서도 플루토폴 유토피아의 향수는 슬픔과 분노를 머금고 있다.

4. 위험과 불확실성의 정치

이 책을 읽으며 나는 한국의 원자력과 관련된 학계의 논의들이 주민을 그리는 방식을 떠올려보았다. 예컨대 아래와 같은 글이 있다.

“(경주시) 나아리 주민들은 (월성) 원전에서 최소 3km를 완충구역으로 설정하여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단단한 벽처럼 요지부동한 한수원의 태도에서 힘을 잃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의 내부 갈등 또한 그들의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든다고 했다. 현재 나아리 총 461세대 중 72세대가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용기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며 한수원이 인근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돈으로 길들이려 하는지 설명했다. 실체 없는 보상금, 주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보상금을 미끼로 주민들을 꺾어 ‘보상금만 바라보는 개’로 만들어 버린다고 한다. 발표가 끝난 후 토론의 자리에서 어떤 분이 ‘어찌보면 세월호 사건과 유사’하다며, 정부에서 오명을 씌우고, 그 오명을 국민들이 손가락질 하도록 만드는 정부의 태도가 한결같다고 하셨다. 발표가 끝나고 숙연한 분위기가 이어졌다.”³

이 글이 지적하듯이 원자력 시설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많은 경우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다. “용기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지식 인들과 탈핵 운동가들의 응원과 무관하게, 주민들 간의 “내부 갈등”이란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적 현상이다. 어떤 주민들은 이주나 발전소 해체를 요구하지만, 어떤 주민들은 보상금을 원한다. 그런데 이것은 과연 원전 인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일까?

우리는 팬데믹 위기 시 적절한 위험 경감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저마다가 주목하는 정보와 처한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거리두기의 강화를 통한 방역을 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가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믿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공하는 자료들은 서로 경합하는 요구들의 정당성을 모두 뒷받침해주며 혼란을 가중시킨다. 특정한 위험의 수위를 평가하고, 이것을 경감하기 위한 수행의 편익이 어느 정도인지, 부담은 어느 정도이며 누구에게 집중되는지, 그것이 필요하고 정당한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다. 이 질문의 답과 관련된 현상은, 그것을 관찰하는 이의 위치에 따라 달리 보일 만큼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에 주어지는 보상금을 “실체 없는” 것,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3 김남영(2016), 「환경사회학회 하계 워크숍을 다녀와서」, 『환경사회학연구 ECO』 20(2), p. 416.

구자는 분석적으로 더 나아간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보상이 “실체 없는” 것이라면, 왜 그 “미끼”로 “피어”지는 지역 주민들이 있는 것인가? 어떤 주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실체”조차 없는 것인데, 다른 주민들에게는 이주 운동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좌우할 만큼의 영향을 끼치는 “보상”이란, 과연 어떤 역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주민들끼리 “손가락질”을 하도록 만드는 도구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헨퍼드 주변의 방사능 오염과 질병의 상관관계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을 정리하고 있는 39장은 특히 주의 깊게 읽어볼 만하다. 1950년대 헨퍼드 주변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외에도 제초제, DDT와 같은 위험 물질이 많이 뿌려져 있었고, 지역의 바람이나 지하수 흐름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어느 곳으로 더 많이 이동시키는지에 대한 해석이 전문가에 따라 분분하여 방사성 선량과 질병 사이의 연관을 찾기란 지극히 어려운 과제였다. 연구자들이 리치랜드의 숨죽인 군중들 앞에서 갑상선 질환 연구의 결론을 발표한 것은 1999년이 되어서였다. 그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1940~1946년에 태어난 3,193명의 사람들 가운데 추정선량과 갑상선 질환 및 암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도 발견하지 못했다”(597).

러시아의 모습도 미국과 다르지 않다. 1957년 키시뎀 폭발 사고 이후 주변의 여러 마을 주민들이 대피 지시를 받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카라볼카 마을 사람들은 여기서 빠지면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마을에 남았다. 마야크 공장 관리자들은 이곳에서 재배한 오이, 감자, 토마토로 식사를 했다. 그러나 소련의 해체가 가까워진 1989년이 되어서야 의료 조사관들이 공개한 기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폭된 마을 사람들 중 방사선병을 앓은 사람은 없었다(466). 물론 우리는 자신의 병을 증언하는 마을 사람들과 공장 노동자들을 찾을 수 있다. 과학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지역 지식(local knowledge)이라고 해서 틀리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은 이것이다. 1940년대부터 얼마만큼의 방사능이 어디로 흘러갔거나 어디를 돌아다녔는

지에 대한 기록은 불완전하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방사능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가운데, 과학 전문가와 주민들은 모두 “일화적이고 정황적”인 성격을 갖는 지식을 생산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처하였다(600). 간단히 말해,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의 두 도시가 생산해 낸 방사능으로 환경이 오염되었고 피폭된 사람들이 있음을 알지만, 이 환경 오염 또는 피폭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확실한 연구(solid studies)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593). 그리고 이 상황은 한국의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만약 확실한 연구를 통해 방사능 피폭과 질병의 관계를 확실히 밝히는 것이 가능한 세상이라면, 여기서 “돈으로 길들”여지는 원자력 시설 주변 주민은 드물 것이다. 반대로 확실한 연구를 통해 관계의 부재를 밝히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주나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이 드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복잡한 세상에서 연구는 불명확한 기록과 불완전한 장비, 현실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도록 단순화된 모델에 의존하여 수행된다. 과학 전문가들이 여전히 피폭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확실한 연구를 통해 밝혀내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삶과 노동을 통해 확립한 지식, 예컨대 오조르스크 테크니션들이 “더러운” 작업을 할 때면 방사선 배지를 떼곤 했기 때문에 기록이 곧 피폭량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놓고 보면 매우 부분적인 유효성만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건강 이상과 피폭 간의 연관을 확립하는 도구로서 한 피폭 경험자의 신체와 기억은 충분히 적합하지 않다.

이처럼 원전의 안전성과 위험성을 지지하는 지식이 모두 “일화적이고 정황적”이라는 한계를 벗지 못하는 가운데서, 주민들 간의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용기”의 불균형한 분배가 아니다. 복잡한 문제를 대면하는 우리는 상황을 더 침착하게, 넓은 관점을 갖고서 직시할 필요가 있다. 월성 원전 인근 나리리 총 461세대 중 72세대는 이주를 요구하며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주민이 이주를 요구하는 이유를 과학적 지식이나 사유 능력의 결

핍에서 찾을 수 없듯이, 이주를 요구하지 않는 주민의 사정이 누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허상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보상금 수령의 의미가 반드시 “길들여짐”에 한정될 것이라 미리 가정할 이유도 없다. 어쩌면 그것은 정말 요약하자면 “길들여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소한 이 길들여짐의 역사가 깊음을, 그리고 그 과정이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가볼 일이 없을 지방 소도시에 소재한 원전 주변 “용기”없는 주민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님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서평을 마무리하는 오늘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8만 6천63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급증한 확진자 규모가 위중증 환자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피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으며, 정부는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오후 9시’를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를 ‘8인·10시’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간의 위협 이해는 단순하지 않으며, 질병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언제나 행동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위험과 풍요 사이에 어떻게 그토록 지속적인 연관이 만들어지는가라는 저자의 의문에 대한 답은 “신도시에서 피어나는 중산층 번영이라는 비전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다. 저자는 그 매력, 분명 여러 차례 도전받았으며 균열 지점을 노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미국을 가로질러 플루토피아로 단결한 두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동 선택을 이끄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과정과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게 한다. 소비자 중심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 위험의 불확실성, 자원을 분배하는 권력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소용돌이를 일상적으로 목격하는 우리 모두는,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살든 어디에 살든, 플루토피아의 시민이다.

